

로마서 묵상 23
(1/9/2021, 토)

찬양: 327(361)(주님 주실 화평)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5:1-2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롬 1:18-3:20 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3:21-4:25 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으로 그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았습니다. 육신적 혈통에 바탕을 둔 유대인들의 선민됨, 그리고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할 로마서 5:1-11 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롬 5:1-2 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1 절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믿음을 통한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번역된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읽으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표현을 국문 번역인 ‘누리자’ 라는 표현대로, 권고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누리고 있다’라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들 가운데, 본문은 칭의를 얻은 성도들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속에 이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 보호의 손길, 충만한 은총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화평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화평”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샬롬’에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의미는 단순히 다툼과 갈등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상태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회복’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샬롬’과 ‘에이레네’ 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깊이 임재하시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성도들도 크고 작은 세상의 일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을 잠시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죄의 징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근원적인 영적 화평을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금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구원과 관계된 근원적인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며, 그 화평에서 오는 우리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함. 2절 -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죄 많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의 복과 기쁨을 누립니다. 눅 15 장에서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의 은혜, 그리고 다시 품어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간 탕자는 그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게 되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준비한 성대한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간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에서, **“바라고”**는 **‘소망 안에서’** 혹은 **‘소망을 가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가진 좋은 것을 다 누리듯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누립니다.

바울은 **살후 2:13-14** 에서도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영적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이 땅에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영적인 복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주님과 나누는 진정한 화평의 은총 가운데 척박한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은혜 중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3. 영적 어두움 속에 탄식하는 복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 속히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땅과 백성들이 소생하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